

낮선 여인의 함정

PIEGE
POUR
UN HOMME
SEUL



HYEONGYEONG LIM • YOO SHIN • YEONSEO KIM • JOOYOUNG KIM • HEEJU KIM • SEHEE NAM
SEOYEON BAE • SEOHYUN SONG • SEUNGEUN OH • JUYOUNG LEE • CHAEYOUN LEE
YUHYUN LIM • SEULAH CHOI • SIA CHOI

Chers amis,

Notre fête est désormais accomplie,
et c'est grâce à votre présence.

Nous vous exprimons notre gratitude
la plus sincère, du fond du cœur.

Avec notre reconnaissance,

Persona

공연을 보러 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의 공연은 여러분의 참석으로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페르소나 일동

Chers professeurs, chers collègues, chers amis, chers étudiants,

C'est avec beaucoup d'honneur que les élèves du Département de français, tout particulièrement, les membres du groupe de théâtre Persona et moi-même, vous recevons ce soir, à l'Université féminine Sookmyung pour cette toute nouvelle représentation théâtrale en français, s'il vous plaît!

La troupe a pour tradition de se produire sur scène, chaque année, pour la plus grande fierté du département de langues étrangères et pour le plaisir de jouer dans la langue de Molière. Après par exemple "La cantatrice chauve", « Les parapluies de Cherbourg », « Boeing Boeing », « Le prénom », « Toc toc », « Le jeu » ou encore « Huit femmes » l'an dernier Nos étudiantes remontent encore joyeusement cette année sur les planches pour vous interpréter: « Piège pour un homme seul » de Robert Thomas !

C'est avec beaucoup de plaisir que j'ai pu les encadrer, depuis des mois, lors de leurs exercices de préparation et leurs répétitions. Sachez que si toutes nos étudiantes apprennent le français, certaines d'entre elles ne le parlent pas encore couramment; et pourtant, vous en jugerez par vous-mêmes, elles sont toutes passionnées, et bien déterminées à vous faire passer une bonne soirée.

Je suis, à ce titre, très fière d'elles, de leur passion et de leur engagement.

Merci pour elles aux services culturels de l'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et à nos généreux sponsors qui soutiennent cet événement chaque année et ce, de manière indéfectible !

Bonne soirée à vous tous !

Sincèrement,

Ida Daussy
Professeure de français
Université féminine Sookmyung



친애하는 교수님, 동료, 친구, 학생 여러분,

프랑스언어문화학과의 학생들, 특별히 연극 학회 '페르소나'의 학생들과 제가 오늘 저녁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새로운 프랑스어 연극 공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우리 학회는 매년 공연을 올리는 전통이 있으며, 이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과의 큰 자랑이자 프랑스어로 연기하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La cantatrice chauve(대머리 여가수)", "Les parapluies de Cherbourg(헬부르의 우산)", "Boeing Boeing(보잉보잉)", "Le prénom(르 프레놈)", "Toc toc(톡톡)", "Le jeu(르 쥬)", 그리고 "Huit femmes(8명의 여인들)" 등의 작품을 선보였고, 올해도 우리 학생들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로베르 토마의 "Piège pour un homme seul(낮선 여인의 함정)"을 선보입니다.

몇 달 동안 학생들의 준비와 리허설을 지도할 수 있어 정말 기쁩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아직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학생들은 모두 열정적이며 여러분께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헌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의 문화원과 매년 이 행사를 지원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진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
이다 도시

SYNOPSIS

결혼한 지 3달 된 신혼부부에게 아내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도 아내의 실종을 알리며 애타게 그녀를 기다리던 남편 다니엘. 어느 날 마을에 새로 부임한 막시망 신부와 함께 그토록 찾아헤매던 아내 엘리자베트가 돌아온다. 하지만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온 여자가 자신의 아내 엘리자베트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집으로 찾아온 그의 아내와 다니엘은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며 팽팽히 맞서는데 경험이 아주 풍부한 경감이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쉽지 않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던 중요한 증인마저 살해당하며 상황은 더욱 극한으로 치달기만 하는데...

Un jour, Elizabeth, une épouse de Daniel est disparue après leur mariage depuis trois mois. Daniel signale sa disparition et en plus il en informe partout à la radio et la télé en attendant d'elle. Après quelque jours, Elizabeth retourne avec un nouveau curé de la ville, Maximin. Cependant, Daniel insiste qu'elle n'est pas sa femme. Cet événement n'est même pas simple pour un police qui est parvenu nombreuse expériences. De plus, un témoin clé est assassiné et cela fait la situation d'autant plus compliquée...

PERSONNAGES



경감

Le Commissaire de police



엘리자벳

Elizabeth



다니엘

Daniel



신부

Maximin



의사

Mlle. Bre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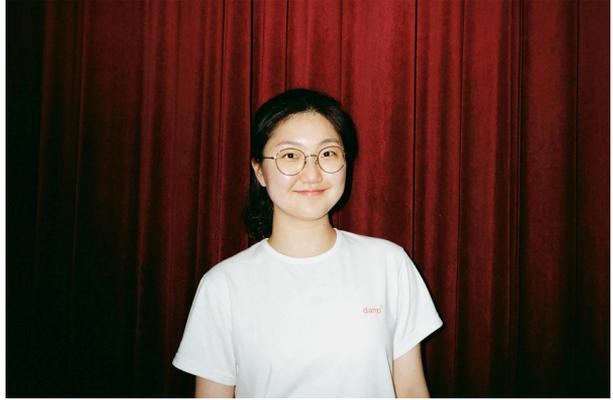
떠돌이 영감

La Merluche



임현경

페르소나 학회장, 배우팀장



김주영

배우팀, 홍보팀





배서연
배우팀, 번역팀



승서현
페르소나 회계, 번역팀장, 배우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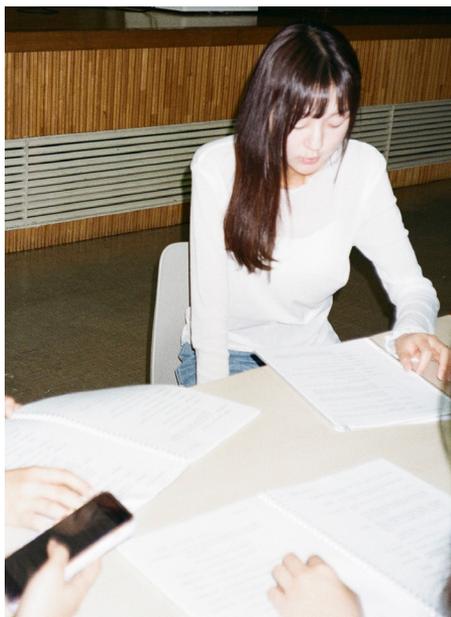


최시아
배우팀, 번역팀



임유현
배우팀, 번역팀







신유
페르소나 부학회장



오승은
기록팀, 무대팀



이채운
기록팀장, 무대팀



최슬아
연출팀장, 기록팀



김연서
무대팀장, 홍보팀





김희주
홍보팀, 연출팀



남세희
홍보팀장, 연출팀







**AMBASSADE
DE FRANCE
EN RÉPUBLIQUE
DE CORÉ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는 프랑스 대사관을 대신하여 연구 및 대학과 과학 교류, 예술 문화의 영향력과 프랑스어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한국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창조 산업은 양국 문화의 활력입니다.

서울 프랑스학교와 하비에르 국제학교는 우리의 협력 관계에 중추 역할을 합니다. 어학 센터와 알리앙스 프랑세즈 조직망은 프랑스와 프랑스어 그리고 그 가치를 한국 전역에 전파하는 데에 있어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suspense

mystère

comédie

écrit par
ROBERT
THOMAS

낮선 여인의 함정

PIEGE POUR UN HOMME SEUL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어문화학과
원어연극학회 PERSONA 제 35회 정기공연

일시 2024.09.28 - 2024.09.29 19시 30분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순현관 5층 중강당

후원 

문의 :



엄현경 신유 김연서 김주영 김희주 남세희 배서연 송서현 오승은 이주영 이재운 임유현 최슬아 최시아

© JUYOUNG LEE 이주영

MERCI